

세계 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현황 및 제도

김성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sgkim1@kaeri.re.kr

방사성폐기물 재원관리 제도는 원자력 발생으로 인한 이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고 원자력발전소를 해체 및 철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평가하여 조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세계 원자력 선진국의 방폐재원 관리제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은 원자력사후처리충당금의 효율적인 제도수립을 위하여 선행해야 할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방사성폐기물 분야에서 선진국인 일본, 핀란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비용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재원의 건전성과 현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발전사업자로 부터 징수된 재원을 발전사업자로부터 독립시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금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가가 기금을 직접관리하므로써 발전사업자의 채무부실상태로부터 재원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원을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심단어 : 방사성폐기물, 방폐재원관리제도, 처분비용평가, 국가기금관리, 현금 유동성